

환경부, <한-중동부유럽 환경산업 포럼> 개최

환경부가 KOTRA(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)와 함께 <한-중동부유럽 환경분야 파트너십 포럼>을 개최한다.

환경부와 KOTRA는 국내 환경기업과 중동부유럽 발주처 간 협력관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0월11일부터 3일간 <한-중동부유럽 그린비즈니스 파트너십 포럼>을 개최한다.

포럼에는 체코, 루마니아, 폴란드 등 중동부유럽 6개국의 환경사업 발주기관 고위 의사결정권자 30여명이 참석해 각국의 환경 현안과 프로젝트 발주계획, 협력 전망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.

국내에서는 포스코건설, 대우건설, 벽산엔지니어링 등 40여개 환경기업들이 참여해 상·하수처리장, 슬러지 처리설비, 탈황 및 집진 설비 등 환경프로젝트 수주 상담을 진행한다.

환경부는 10월12일 체코 투자청과 공동으로 <한-체코 녹색산업 기술세미나>를 개최해 양국의 녹색산업기술 관련 정책 및 제도 현황, 핵심 기술 및 프로젝트, 양국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.

<화학저널 2011/10/11>